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적 도덕이 삶에 대한 경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어떤 문화나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가치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이러한 입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추론에 대한 논리적 구조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②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 ③ 실천적 규범을 통한 도덕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경시한다
- ④ 현실적 도덕에 대한 가치 중립적 설명의 필요성을 무시한다
- ⑤ 보편적 도덕규범의 이론적 체계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다음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에게
얼마 전 자네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뻐다네. 공자는 “경(敬)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라.”라고 말했다네. 이러한 가르침은 ㉠ 간의 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네. ㉠ 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성장하여 만난 두 사람이지만, 자네가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듯 존중한다면 어찌 백년해로(百年偕老)할 수 없겠는가? …(후략)…

<보기>

- ㄱ. 혼인(婚姻)을 통해 맺어진 가족 관계이다.
- ㄴ. 상경여빈(相敬如賓)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ㄷ. 향렬(行列)에 따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이다.
- ㄹ. 동기간(同氣間)으로서 배려해야 하는 가족 관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거의 정의롭지만 정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므로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지며, 어떤 개인적 도덕 원칙이나 종교적 교설이 아닌 공유된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시민 화합을 해치는 것으로 보이면, 그 책임은 불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위와 권력을 남용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 ① 시민 불복종의 주체는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인가?
- ② 시민 불복종의 의도는 동료 시민들에게 공포되어야 하는가?
- ③ 시민 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 행위인가?
- ④ 시민 불복종의 목적에서 정부 정책의 개혁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 ⑤ 시민 불복종은 어떠한 합법적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 행해져야 하는가?

4. 갑, 을의 사상적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지인(至人)은 무위(無爲)하다. 도(道)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기(氣)가 모인 것이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를 일컬어 인연법(因緣法)이라고 한다.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

<보기>

- ㄱ. 갑: 죽음은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 ㄴ. 갑: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哀悼)의 의무를 강조한다.
- ㄷ. 을: 연기(緣起)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한다.
- ㄹ. 갑, 을: 삶과 죽음을 분별하여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어떤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다. 윤리적 의사 결정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한다.
(나) 어떤 행위 규범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규범적으로 정당한 실천적 담론은 의사소통의 일반적 전제 조건들에 근거해야 한다.

- ① (가):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는 알 수 없다.
- ② (가):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 규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된다.
- ③ (나):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 ④ (나): 담론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 ⑤ (가), (나):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규칙이나 규범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6.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만약 즐거움을 위한 시가 훌륭한 법질서를 갖는 국가 안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시를 받아들일 것이다. 시가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인간 생활에 이로운 것임이 밝혀진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시인이나 설화 작가들이 모방을 할 경우에는, 용감하고 절제 있고 경건하며 자유인다운 사람들을 모방해야만 한다. 반면에 그 어떤 창피스러운 것도 모방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것을 모방하는 데 능한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

— <보기> —

- ㄱ. 예술은 선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 ㄴ. 예술은 진리를 왜곡할 경우 비판받아야 한다.
- ㄷ. 예술에서 미와 선의 내용은 유사할 필요가 없다.
- ㄹ. 예술은 사물의 실재보다 외관을 아름답게 모방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의로운 전쟁을 옹호하는 저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전쟁은 때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과 전쟁은 언제나 도덕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 판단의 근거는 효용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도덕 판단의 영역은 개시, 수행, 종결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어떤 전쟁이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때는 전쟁 개시의 영역이 전쟁 수행의 영역보다 우선합니다. 전쟁 개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명분입니다.



- ① 전쟁은 어떠한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전쟁의 정당한 명분을 사회 전체의 효용에서 찾아야 한다.
- ③ 전쟁의 정당한 명분보다 전쟁 수행의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전쟁은 국가의 주권 사항이므로 도덕적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⑤ 전쟁 개시의 정당한 명분만으로 그 전쟁이 정의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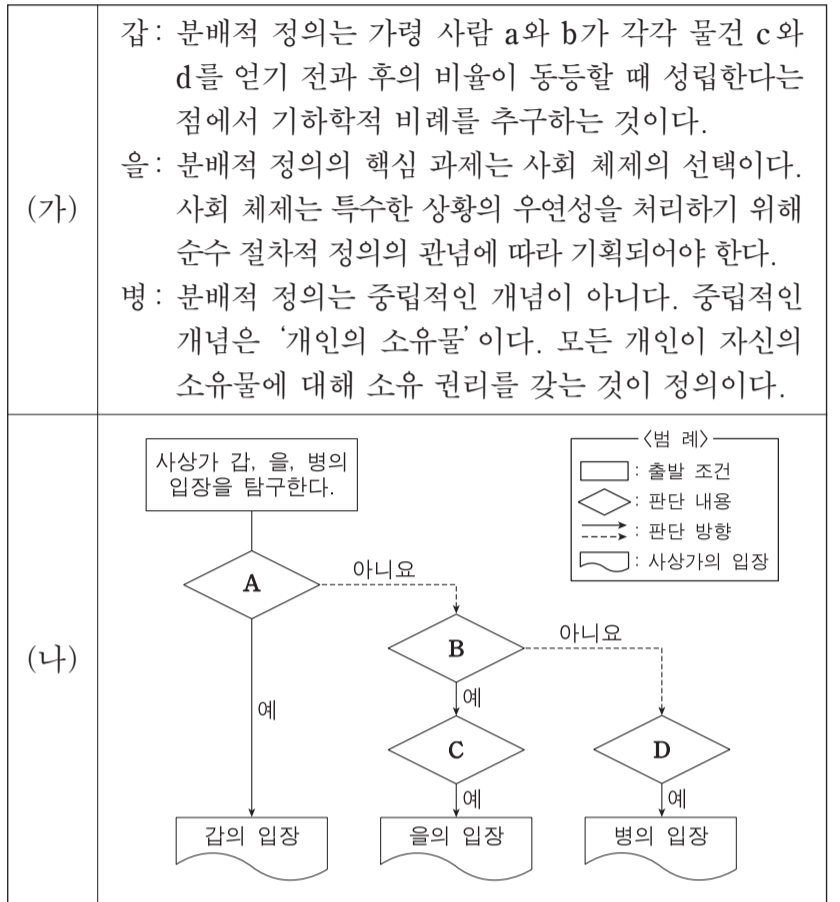
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결혼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부부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으며, 출산을 통한 사회 안정과 책임 있는 성 문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을: '사랑 없는 성'은 비도덕적이다. 결혼이 아니라 사랑이 도덕적 성의 조건이며,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① 갑은 부부만이 정당한 성적 관계의 주체는 아니라고 본다.
- ② 갑은 성적 관계의 정당성이 사회 존속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 ③ 을은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하다고 본다.
- ④ 을은 성적 관계가 부부 사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9.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A: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인가?
- ㄴ. B: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한가?
- ㄷ. C: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가?
- ㄹ. D: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한가?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0.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강하다, 길다, 확실하다, 빠르다, 효과적이다, 순수하다—쾌락과 고통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지속시켜라. 만약 사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추구하라. 만약 공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확대하라.
(나)	고등학생인 A는 같은 반의 B와 말다툼을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A는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학급 채팅방에서 B를 상대로 *사이버 불링을 같이 하자고 부탁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사이버 불링: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것

- ① 사이버 불링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② 사이버 불링이 자연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③ 사이버 불링이 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④ 사이버 불링이 모성적 배려를 실천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⑤ 사이버 불링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어떤 존재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도덕적 논증은 있을 수 없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존재들 간의 동일한 고통을 동일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 목표 지향적이라는 뜻으로, 생명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항상적인 경향성이 있다는 말이다.</p> <p>병: 인류는 대지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류의 역할은 동료 구성원과 대지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p>
(나)	

<보기>

ㄱ. A: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ㄴ. B: 인간은 생명체에 끼친 해악에 대한 보상적 정의의 의무를 지닌다.
 ㄷ. C: 개체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ㄹ. D: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한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2.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勞心],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勞力].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다면 항심(恒心)도 없게 된다.

을: 노동이 분업에 의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용주는 자본가가 되어 지휘와 감독,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 분업은 특수한 기능에 적합한 부분 노동자를 양산하며, 노동자는 작업장의 부속물로서 자본의 소유물이 된다.

⊙ 학생 답안

사상가 갑, 을의 직업 노동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직업에는 대인과 소인의 역할 분담이 있으므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며, ㉡ 직업을 통해 백성의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을은 ㉢ 노동자는 생산 수단이 없으므로 생계를 위해 자본가에게 예속된다고 보며, ㉣ 노동자는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인간은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지성, 용기, 결단성 등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이런 천부적인 자질들을 이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을: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 ① 갑은 오직 결과를 고려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② 을은 진정한 정의는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사회 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선한 천부적 자질은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모두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14.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선은 눈에 띄지 않게 존재하며 반성을 하지 않으면 인식될 수 없지만, 악의 현존은 우리에게 인식을 강요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은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인간 행위의 새로운 유형에 적합하고 새로운 유형의 행위 주체를 지향하는 명법은 다음과 같다. “너의 행위의 효과가 지상에서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조화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①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②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③ 새로운 윤리학은 최고악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④ 새로운 윤리학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지향한다.
 ⑤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도 중시해야 한다.

15.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고향을 잃고 지구상 어떤 곳에도 매여 있지 않은 영원한 망명자이다. 하지만 집은 이러한 위험과 희생의 공간인 외부 공간과 구분되는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인간은 자신의 중심점인 집을 스스로 만들어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 때 진정한 거주를 실현한다. 인간은 이러한 거주 실현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

- ①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된다.
 ② 인간은 진정한 거주를 실현하지 못하면 영원한 망명자이다.
 ③ 인간은 거주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없다.
 ④ 외부 공간은 위험과 희생이 아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다.
 ⑤ 진정한 삶의 실현을 위해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